

네카오, 지난해 매출 ‘역대최고’ 전망… 체질개선 박차

〈네이버·카카오〉

네이버, 커머스 부분 실적효과 역할
4분기, 전년 동기비 40% 성장예상

카카오, 매출 15%↑ 영업익 18%↓
경영공백에 따른 수익성 감소 영향



네이버, 카카오 로고.

/각사

네이버와 카카오가 지난해 역대 최고 매출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특히 네이버의 매출은 10조원을 돌파할 수 있을지 이목이 집중된다. 하지만 양사의 영업이익은 3배 이상 차이난다. 네이버는 1조를 넘길 것으로 보이는 반면, 카카오는 4000억대에 그칠 전망이다.

31일 금융정보업체에프엔가이드에 따르면 네이버가 다음 달 2일 지난해 4분기 실적을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매출은 2조5675억원, 영업이익 3964억원을 달성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지난해 연간 매출과 영업이익은 각각 9조7011억원, 1조4797억원을 기록했을 전망이다.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18.0%, 영업이익은 13.4% 증가한 수치다.

이는 커머스 부분이 실적 효과 역할을 했기 때문이다. 증권가는 네이버의 지난해 4분기 커머스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40% 성장한 것으로 예상했다. 지난해 10월부터 시작한 도착보장 유료화, 브랜드스토어 수수료율 인상 등이 매출 증가에 기여했다. 웹툰 매출은 약 4000억원 가까이 증가할거란 분석이다.

특히 일각에서는 네이버의 지난해 매출이 증권가 전망치를 상회해 10조원을 기록했을 가능성도 제기한다. 네이버의 게임 특화 스트리밍 플랫폼 ‘치지직’, 숏폼 서비스 ‘클립’, 광고주향 AI 광고 솔루션 ‘클로바 포 애드’ 등 신규 서비스들이 중장기적으로 네이버 광고 매출 상승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한다.

윤예지 하이투자증권 연구원은 “올해 검색 광고는 견조한 성장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하고, 커머스도 도착배송 확대를 통해 수수료율이 상향됐다”며 “주요 자회사인 네이버웹툰의 나스닥 상장이 예정되어 있는데 (네이버웹툰) 매출 규모와 글로벌 점유율을 고려했을 때 기업가치만 10조원 내외가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카카오 또한 역대 최고 연간 매출이 예상되지만 영업이익은 하락할 전망이다.

에프엔가이드에 따르면 카카오 지난해 연간 매출과 영업이익은 각각 8조1667억원, 4751억원으로 예상된다. 전년 대비 매출은 14.9% 증가했지만 영업이익은 18.1% 줄어든다.

이는 지난해 SM엔터테인먼트 시세

조종 혐의로 김범수 창업자를 포함한 주요 경영진들이 수사를 받은 데 따른 경영 공백이 수익성 감소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카카오의 지난해 4분기 실적은 선방한 것으로 보인다. 같은 기간 매출은 2조2230억원, 영업이익 1502억원을 기록할 전망으로 이는 전년 동기 대비 각각 25.3%, 49.7% 늘어난 수치다.

증권가는 엔터테인먼트 및 엔터프라이즈의 구조조정에 따른 인건비 감소 등이 이익을 이끌었다고 보고 있다. 실제로 카카오엔터프라이즈는 대규모 구조조정 이후 클라우드 이외의 사업을 정리했다.

네이버와 카카오는 올해 인공지능(AI)을 기반으로 한 서비스 시장 공략을 본격화하고 실적 반등을 도모한다.

올해 네이버는 생성형 AI ‘하이퍼클로바X’를 기업간거래(B2B), 기업정부간(B2G) 사업을 위한 서비스 단과 클라우드에 녹여내면서 실적 상승을 이끌 것이란 전망이다. 올해 생성

형 AI를 적용한 ‘큐:(CUE:)’의 모바일 버전 및 앱 버전과, 게임 스트리밍 서비스 ‘치지직’ 정식 오픈 등도 실적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카카오는 커머스 사업 확장, 디지털 헬스케어 사업 등으로 실적 개선을 도모할 것으로 전망된다.

내달 카카오헬스케어의 혈당관리 솔루션 애플리케이션(앱) 파스타가 출시를 앞두고 있어 실적 확대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또 오는 3월 정신과 내정자가 카카오 대표로 취임한 이후에도 체질 개선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안재민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카카오에 대해 “최악의 국면은 지났다”며 올해 카카오톡 탭 개편과 그에 따른 광고 노출도 증가, 자회사 실적 성장, 비용 절감 노력이 더해져 실적이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면서 “하반기 이후 경기마저 회복된다면 실적 성장은 예상보다 빠르게 개선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구남영 기자 koogija_tea@metroseoul.co.kr

“D램·낸드플래시 등 반도체 성장 뚜렷할 것”

세미콘코리아 2024 간담회
올 반도체산업 ‘회복의 해’ 표현
반도체 메모리·장비 성장폭 클 것

반도체 시장이 지난해 깊은 침체를 끝내고 본격적으로 반등할 전망이다.

국제반도체제료장비협회(SEMI)는 31일 서울 코엑스에서 개막한 세미콘코리아2024에 앞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산업 전망을 제시했다.

첫번째 강연을 맡은 테크인사이츠 안드레아 라티 디렉터는 올해를 반도체산업 ‘회복의 해’라고 표현했다. 정점까지는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하반기부터는 가시화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장기적으로도 매우 긍정적이라고 강조했다.

국가별로는 삼성전자가 10년 동안 가장 많이 지출했지만, 중국이 빠르

게 점유율을 높이고 있다고 소개했다. 생산 능력도 중국이 가장 많은 수준으로 올라설 것으로 예상하며 국가별 반도체 지원 등도 영향이 클 것으로 봤다.

산업별로는 올해 메모리 성장이 뚜렷할 전망, D램과 낸드플래시 모두 회복할 것으로 기대했다. 반면 비메모리가 주춤, 산업용과 자동차 등은 부진할 것으로 전망했다. 반도체 장비 역시 성장을 기대하며 AI와 패키징 관련 부문에서 성장폭이 가파를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서 SEMI 클락청 수석디렉터도 비슷한 분석을 내놨다. 전 세계 인플레이션 안정화와 통화 정책 완화를 예상하며 올해 성장세로 돌아설 것으로 확신했다. 지난해 4분기부터 스마트폰과 PC 등 전방 산업도 안정화됐

다고 덧붙였다. 장비 시장에서는 중국이 놀라운 성장세를 보이는 가운데, 낸드플래시가 시장이 회복으로 투자도 큰 폭으로 늘 것으로 내다봤다. 전 세계적인 생산량 증가도 기대했다. 중국은 물론 한국과 대만, 미국과 일본에 이어 인도와 동남아까지도 반도체 산업 확장을 예상했다. 국가별 12mm 웨이퍼 장비 투자는 한국이 가장 많지만, 중국이 앞서 나갈 것이라고 분석했다.

장기적으로는 AI와 HPC가 성장 동력이 될 것이라며, 장기적으로도 반도체 팹 투자도 다각화될 것으로 예상했다.

/김재웅 기자 juk@



유튜브(메트로신문) 동영상 제공



LGU+ “U+tv로 아마존 프라임 비디오 보세요”

인기 오리지널 콘텐츠 제공

LG유플러스는 내달 1일부터 IPTV ‘U+tv’와 모바일 TV 플랫폼 ‘U+모바일tv’를 통해 아마존 프라임 비디오의 인기 오리지널 콘텐츠를 제공한다

31일 밝혔다. 아마존 프라임 비디오는 전 세계 2억 명 구독자를 보유한 글로벌 OTT 서비스다. 아마존은 지난 2022년 할리우드 대표 영화사인 MGM을 인수했으며, 칸 영화제·아카데미 시상식·에미상 등에 노미네이트 된 다수 콘텐츠 라인업을 확보하고 있다.

LG유플러스는 아마존 프라임 비디오의 오리지널 영화와 드라마 270여 편을 VOD 형식으로 제공한다. 대표 영화



LG유플러스 직원이 U+tv로 제공되는 아마존 프라임 비디오 오리지널 콘텐츠를 소개하는 모습.

/LGU+

는 ‘7500’, 내일의 전쟁, 더 리포트 등이며, 대표 드라마는 높은 성의 사나이, 모차르트 인 더 정글 등 28개 시리즈다.

정진이 LG유플러스 미디어사업트 라이브장은 “앞으로도 전 세계의 다양한 드라마·영화를 제공하며 고객

시청경험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구남영 기자



유튜브(메트로신문) 동영상 제공



삼성 ‘갤럭시 S24’ 전 세계 공식 출시

삼성전자가 자사 첫 AI(인공지능) 스마트폰 ‘갤럭시 S24’ 시리즈를 전세계 주요 국가에서 공식 출시한 31일 서울 마포구 삼성스토어 흥대를 찾은 시민이 갤럭시 S24 시리즈 제품을 살펴보고 있다. 갤럭시 S24 시리즈는 한국,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인도, 싱가포르 등을 시작으로 전세계 120여개국에 순차 출시된다.

삼성전자가 자사 첫 AI(인공지능) 스마트폰 ‘갤럭시 S24’ 시리즈를 전세계 주요 국가에서 공식 출시한 31일 서울 마포구 삼성스토어 흥대를 찾은 시민이 갤럭시 S24 시리즈 제품을 살펴보고 있다. 갤럭시 S24 시리즈는 한국,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인도, 싱가포르 등을 시작으로 전세계 120여개국에 순차 출시된다.

/삼성전자

KT, 유망 스타트업에 최대 2억 지원

브릿지 창업도약패키지 3기 모집
KT전담 사업부서 매칭 등 제공

KT가 유망 스타트업을 발굴하는 KT 브릿지 창업도약패키지 프로그램 3기를 오는 2월 23일까지 모집한다고 31일 밝혔다.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진흥원, 경북 대학교와 함께 운영하는 이번 프로그램은 창업지원포털 K-스타트업에서 참가 신청할 수 있다. 창업도약패키지 프로그램은 3~7년차 도약기에 있는 유망 스타트업을 발굴해 KT와 공동으로 협업할 과제를 선정하고 기술검증(POC)과 함께 최종 공동서비스, 사업화를 목표로 하는 기업 스케일업 프로그램이다.

공모분야는 인공지능(AI), 클라우드, 미디어, 콘텐츠, ICT융합서비스 등 총 5개로 KT와 협력 가능한 기술, 서비

스, 콘텐츠를 가진 기업이다. 선발된 스타트업은 기업당 최대 2억원의 사업화 자금을 지원받고 신사업 추진을 위한 KT전담 사업부서 매칭, 멘토링을 제공받는다.

또 중동 두바이에서 열리는 GITA X 등 해외 전시회 참여, 글로벌 PoC 등 프로그램과 국내외 벤처캐피탈(VC) 투자 유치와 KT그룹, KT윙펀드 등을 통한 투자 검토도 함께 지원할 예정이다.

KT에서 운영하는 서울, 대전 등 입주 공간, 다양한 테스트 랩을 지원하고 KT에서 보유한 특허 무상 양도 기회 역시 제공한다. KT는 신성장분야 파트너와 소통, 사업협력을 위한 플랫폼인 에코온에 등록해 KT 사업정보, 제휴, 협력기회 등 지속해서 제공할 방침이다.

/구남영 기자